



# 畜產振興策에 對하여

嶺東畜產株式會社 副社長 農學博士 李 南 信

요즘 政府關係當局은 朴大統領의 強力한 指示에 따라 落後된 國內畜產業을 振興시키기 爲한 具體的인 方案을 樹立하고 法的措置와 財源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어 畜產開發을 爲한 意慾은 마침내 國內外的 財閥에까지 크게 波及되어 우리나라 畜產發展史上 劃期的인 契期가 되어가고있어 그가름은 후일로 미루더라도 于先은 至極히 多幸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畜產業의 現況을 살펴보면 農政의 方向이 米麥에 編重하여 있기 때문에 農林長官은 穀價의 調節이나 肥料需給에만 始終하고 畜產은 穀物의 搗精副産物이나 農家殘滓物을 飼料資源으로 하여 附隨的 副業形態로 經營하는 것으로 古息的인 思考方式을 脫皮치 못하여 왔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서 畜產業의 企業傾向이 多少늘어나고있어 政府의 畜產支援策도 어느程度 過去보다는 달라진것도 事實이나 政府가 他產業에 投資하는 것에 비해 불배 畜產開發部門의 投資는 項目뿐이지 거의 보잘것없을程度로 貧弱하였으며 그러므로 畜產業은 恒常 零細한 그늘에서 헤어나갈수가 없었던 것이다.

一般的으로 우리나라 畜產業을 發展시키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家畜의 品種改良과 飼養技術의 改善 飼養規模의 擴大 飼料價格의 年中平準化와 供給의 圓滑, 牧野造成, 畜産物價

格의 安定 等 時急한 施策이 國家的인 果題로서 切實히 要請되는 問題들이다.

그럼에도 不願하고 現 우리나라 畜產業은 家畜의 品種改良事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經營規模나 飼養技術은 零細性을 脫皮치 못한채 落後相을 들어내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66年の 農林統計에서 全國的인 有畜農家의 動態를 보아도 230萬 農家 가운데 家畜을 飼養하는 農家戶數는 約 200萬戶에 達하고 있다고 하지만 닭의 경우 500首以上 飼育하는 農家數는 헤아릴程度이고 한農家に 겨우 몇마리 많아야 數拾首程度 飼育하고있는 實情이다. 또한 소나 돼지의 경우도 一頭乃至二頭 飼育하고 있는 程度로서 企業的인 畜產業을 經營하는 農家は 거의 없는 現實이다. 뿐만 아니라 飼料의 基盤助成이 없는 原因으로 飼料價는 不安定하고 畜産物價格은 他物價 上昇率에 比하여 低調한 실경에다가 政府의 政策的인 支援의 欠如로서 韓牛는 해마다 數萬頭式 減少하여 왔든 것이다.

지금까지 畜產業의 不振事由를 살펴보면 첫째로 畜產業이 副業的인 領域을 脫皮치 못하였으며

둘째 飼料需給의 不安定

셋째 量産體制를 갖추지 못하였으면서 需要供給을 감안하지 않은 生産爲主의 政策으로

季節的인 價格波動을 招來하여 委縮의 歎息  
환을 거듭하여 왔으며  
넷째 政府의 資金支援이 지극히 미온적 임  
으로 經營規模가 零細한 狀態였으며  
다섯째 畜產業은 投資의 회임期限이 긴 반면 利  
潤이 적기 때문에 企業人의 資本誘致가 不振  
하며

여섯째 品種改良의 不振과 生産能力의 低劣  
일곱째 技術普及의 未洽  
여덟째 政府의 一貫性있는 畜産施策의 未確立  
等を 重要한 不振要因으로 例舉할 수 있다.

금번 政府가 앞으로 農業政策의 하나로서 企  
業農育成과 都市資本誘致로서 企業畜産의 開  
發에 重點的인 支援을 爲한 畜産振興四個年 計  
劃이 樹立된 것은 暗夜의 등불처럼 畜産의 앞  
날에 希望을 주게된 것이다.

第二次大戰以後 東南亞의 比較的 後進國들  
의 農村經濟가 急速度로 向上된 것을 農業經  
營의 合理化를 期하기 爲한 農業構造를 改善  
한데에 重要한 原因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米麥中心의 主穀農業에서  
畜産을 爲主로한 有畜農業 或은 蔬菜를 中心  
으로한 園藝農業 即 米麥·畜産·園藝의 三大  
支柱로한 營農의 多角化를 期하여 適切適産主  
義로 果敢한 豫算의 投入으로써 施策面에 積  
極反影시켜 農家所得을 增大하는 方向으로 育  
成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同時에 食生活에 있어서도 國民主食인 米麥  
食을 一時에 動物蛋白質로 變更하는 것은 不  
可能하나 米·麥·감저 등의 植物澱粉에서 動物  
蛋白質 비타민으로 점차 轉換하여 米麥의 消  
費量을 迭減하여 가는 것이 國民의 營養과 體  
位向上에도 重要한 要素가 됨으로 食生活改善  
의 國民運動이 이에 並行되어야 한다.

從來의 畜産 또는 有畜農業이라하면 一般 米  
麥農業經營의 手段에 附隨되는 副業程度로만  
認識되어 온 것이 우리農民自身이나 所謂 指  
導層에 있는 政治人이나 行政責任者들의 共通  
된 觀念이었다.

前記한 바와같이 農業經營을 合理化하고 農  
家所得을 增大하여 國民生活의 安定을 도모하  
기 爲하여서는 米麥의 生産과 아울러 適地適  
産으로 野菜와 果樹의 適地에는 換金이 容易  
한 新鮮農作物을 集團獎勵하고 平野地帶와 中  
間地帶農村을 中心으로한 養豚 養鷄 都市 주변  
草資源을 中心으로한 酪農 輿地草資源을 利用  
할 수 있는 韓牛 또는 肉牛生産과 密峰等의 企  
業的 多頭飼育의 有畜農家助成等으로 畜産을  
振興시킴으로서 農業全般의 生産을 增加하여  
農村經濟의 復興을 期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은 目的을 達成시키기 爲해서는 基  
本的인 問題로서 低利長期性資本의 果敢한 投  
下飼料의 長期 및 短期的인 基盤整備畜産物의  
價格安定과 流通構造의 改善 畜産物生産體制  
의 組織強化 種畜의 資質改良 畜産物加工業의  
育成 畜産物의 國內外市場擴大 및 高度의 飼養  
管理의 技術向上等 多面的인 改善이 先行되어  
야 할 것이다.

以上的 問題點을 各項目別로 略述하면 첫째  
飼料의 長期的인 基本問題는 무엇보다도 牧野  
造成事業이다.

國土의 70%가 넘는 林野 및 遊休地의 牧野  
造成事業은 畜産的인 見解를 떠나서 治山治水  
에서부터 地力의 維持培養을 考慮할때 牧野改  
良은

첫째 國土의 保存이 되고

둘째 國土의 經濟的利用으로서 農業生産力  
의 增加와 農業經營安定에 寄與하는데 보다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는 牧野開  
發公團을 設立하고 全國적으로 160餘萬町步  
의 遊休林野를 政府資金의 年次的인 長期投資  
로서 이 專擔機構로 하여금 國土開發의 効率  
的인 利用을 爲하여 全國적으로 牧野適地를 調  
查하여 牧野地로 使用可能한 傾斜度의 林野를  
牧野로 造成하여 畜産園地를 設定하고 그 草  
地를 養畜農家에 貸與 또는 拂下하고 40~50  
年의 長期償還토록하는 制度를 마련하고 適地  
適種의 家畜을 大量投入 低廉하고 豊富한 勞

動力을 集中的으로 利用하던 生産量도 節約되고 經濟的 商品性 生産을 이룩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關聯加工 施設을 마련하면 國際的 市場擴張도 容易하게 될 것이다.

國土의 山岳地帶가 大部分인 瑞西 丁抹英國은 政府가 牧野를 造成하여 民間 또는 畜產協業團體에 99年間 低利償還으로 하고 貸與하는 制度를 마련하여 國土의 70~75%를 牧畜地 또는 採草地로 利用하여 畜產富國을 이룩한 것이다. 萬一 우리나라도 外國과 같이 大規模의 牧野造成만하면 酪農을 爲한 乳牛나 肥育肉牛 生産을 爲한 外資導入도 至極히 容易하게 實現 할 수 있으며 輸出의 擴大도 이루어질 것이다.

流通飼料增産, 飼料問題는 畜產資源增大的 필수조건으로서 飼料의 圓滑한 供給으로서만 비로소 畜産이 成立되는 것이다. 앞으로 畜産의 企業的인 發展에는 畜産物의 價格安定과 飼料供給이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더구나 畜産을 企業化하여 畜産物의 規格生産을 國際化하려면 科學的인 飼料工業化가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그럼으로 政府는 飼料基金制를 設置하고 食糧需給과 分離하여 獨自的인 飼料需給計劃을 樹立하고 調節用 備蓄用 飼料의 大量確保로서 需給의 合理化를 期하여 低廉한 飼料供給을 年中平準化 하므로서 生産費를 引下하고 畜産物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여 輸出의 増大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畜産物價格安定法을 制定하고 畜産物安定基金을 設定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畜産物價格調節에 關한 基金의 設定과 政府의 生産物 消費對策이나 安定된 流通을 爲한 政策이 없었으므로 意慾的 增産을 하여도 그結果는 消費不振과 價格保障이 없어 生産費 以下의 赤字를 免치 못하게 되어 家畜의 投賣 또는 廢業을 不得已하게 하는 事例를 많이 反復함으로서 畜産發展을 阻害하였을 뿐만아니라 窮極에는 國內加工業과 計劃輸出에도 莫大한 차질을 招來케되어 國際交易에도 不利한 結果를 가져

왔었다.

그럼으로 畜産物價格安定基金制를 設定하고 專擔機關 (例 現農漁村開發公社)으로 하여금 畜産物價格安定을 도모케하고 畜産經營에 必要한 資金의 調達을 圓滑히하여 畜産 및 關聯産業의 健全한 育成을 도모하는 制度를 마련하여 養畜家は 安心하고 生産에 盡力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로 農村發展의 唯一한 希望의 燈臺가 되어야 할 現畜産協同組合을 農協傘下에서 獨立시켜 畜産協同組合中央會로 擴大新設하여야 한다. 農業을 中心으로 한 各種系列은 스스로 同系列의인 聯合會 또는 中央會를 構成하고 同一한 目的達成을 爲해서 至大한 成果를 거두고 있으나 畜産協同組合系列만이 農協中央會의 組織面에서 政策的인 參與의 길이 막혀있다. 예를 들어 80餘名의 代議員中 畜産關係는 겨우 2名뿐이고 興信業務의 길이 막혀있어 自主的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치 庶子取扱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그럼으로 모처럼 劃期的인 畜産振興計劃을 政府가 세운바에야 결실발이式 政策이 되지 않도록 畜産振興에 그 機能을 發揮할수 있도록 土聯 山聯 水協 등과 같이 全國의 各畜協과 畜産系列團體가 一聯의 聯合會를 形成하여 大同團結로서 共通運命을 打開하여 나가도록 生産組織體를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畜産經營의 指導, 元來 우리나라 農業은 純全한 米麥中心의 存在이었기 때문에 耕種農業이었고 畜産은 一種의 副業的인 存在이었기 때문에 畜産을 經營하는데 있어서 그 施設에 있어서나 技術管理 또는 防疫에 있어서 未熟한 點이 許多함으로 이것을 指導할 官民의 畜産技術者의 任務가 重大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點에 立脚하여 獸醫畜産技術者로서의 國家公務員은 勿論 農村指導員을 大幅增員하여 農村의 4H 俱樂部의 適切한 利用과 畜産協同組合과의 有機的인 協助와 研究와 努力을 加重하여 生産増大와 能率增進을 期하도

록 指導體系를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畜産加工技術의 向上, 우리나라와 같이 市場性이 적고 財政이 貧弱한 現實에서는 恒例의 經濟現象으로서 畜産物아니라 모든 一次 產品에 있어서는 生産 加增이 되면 季節的으로 調節力이 없으므로 生産과잉과 판로부진의 結果로 가격폭락이 되고 生産費에 未達하는 恐慌이 오기때문에 農民은 莫大한 損失을 免치 못하고 單다.

이와같은 現實을 打開하기 爲하여서는 農漁村開發公社 또는 生産者代表者格인 畜産協同組合에 果敢한 投融資로서 畜産物加工 및 貯藏施設을 大的으로 擴張 또는 新設을 하고 同時에 乳肉加工技術의 向上을 도모하여 優良商品生産을 하므로써 國內畜産物 需給의 適切한 調節과 나가서는 國際市場과 競爭할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이 必要할 것이며 이 目的達成을 위 해서는 貯藏加工技術의 方法과 公衆衛生에 對한 不斷의 研究가 切實히 要請되는 것이다. 一方 畜産物의 輸出 또는 UN軍 軍納에 對하여서는 規格品の 嚴格한 檢査制度和 政府의 積極인 補償措置가 確立되며 生産者에 對한 生産過剩으로 招來되는 價格不安定으로 因한 損失을 防止하여 취야 할 것이다.

일곱째 家畜防疫, 從來의 家畜防疫은 急性的으로 莫大한 被害를 주는 急性傳染病에만 重點的으로 實施하여 왔지만 앞으로 畜産을 農業의 基幹産業으로서 企業化促進의 政策方向에 있어서는 家畜의 經濟的 飼養管理가 重要한 要素가 될 것이다.

그 意味는 家畜을 企業的으로 多頭數 飼育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問題視되지 안했던 慢性的疾病 또는 未知의 疾患等 例컨대 家畜의 繁殖障害症 營養障害 寄生蟲病等 눈에 보이지 않는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招來하기 쉬우므로

이를 防止할 수 있는 合理的인 飼養管理와 防疫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덟째 獸醫畜産教育의 充實, 畜産資源을 增強하고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함에 第一重要한 것은 教育이다. 現在 各農科大學에 設置한 獸醫學科 畜産學科의 教育實態를 보면 몇개의 大學을 除外하고는 學科目教育에만 置重하고 施設의 貧弱 또는 教授에 對한 研究費不足 등으로 實質的인 科學技術教育面이 輕視되고 있는 傾向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大學實情이며 施設이 完備되어 있는 大學에서도 豫算不足으로 機能을 完全發揮치 못하고 있다하니 앞으로 企業畜産의 健全한 發展과 無畜農家의 一掃로서 國家의 命題인 農家所得增大事業을 成功的으로 指導하는데에는 大學을 卒業後 即刻的인 畜産資源增強의 實務에 從事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知識의 教育과 併行하여 實地 應用面의 교육에 注重하도록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以上 畜産振興에 가장 根幹이 되며 基礎的인 몇가지를 項目別로 羅列한 感이 不無하나 政府의 企業畜産에 對한 지원과 諸般免稅措置等 지금까지 比하면 劃期的이라고 할 수 있는 政策이 樹立되어 실천단계에 있는 畜産이란 그러한 政府의 措置만으로서 容易하게 企業化가 促進될 수 없다는 信念에서 몇가지 補充的인 愚見을 말하였으나 結論的으로 今般 政府의 畜産振興計劃事業은 앞으로 이에 隨伴되는 諸般法的措置와 基金이 確保되는대로 推進되지만 一部 不合理한 點을 早速是正하여 執行되 이事業은 어디까지나 農家를 相對로한 無畜農家一掃와 所得增大를 爲主로한 政策이 되어야하며 農民과는 關聯이 없는 一部 農企業人에게만 特惠가 되어서는 所期의 成果를 期待하기 困難할 것이라는 點을 強調하여둔다. ■